

세상사(世相史)의 가능성

시게노부 유키히코 (重信幸彦)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번역: 김현잠)

1. 지역 문제로서의 고층집합주택

오늘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3 국의 고층집합주택 생활에 관한 연구 보고를 들으면서 단지나 도시 재개발처럼 처음부터 한 지역을 새로이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층집합주택이란 기본적으로 한 건물 안에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공용공간이 마련되어 있다해도 그 역시 거주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최근 6, 7년 동안 후쿠오카 현(福岡県) 후쿠오카 시(福岡市) 하카타 구(博多区)의 근세 이후 이어져온 한 동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사실 이 동네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맨션이다. 역사가 오래된 상점가가 있고 야마가사(山笠), 돈타쿠(どんたく) 등과 같은 유명한 축제를 유지해온 하카타 시내 지역 중의 한 곳인데, 요 몇 년 사이에 결코 넓다고는 할 수 없는 동네에 원룸 맨션을 비롯한 3 채의 맨션이 세워졌다. 이 맨션의 거주민들이 동네 자치조직이나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동네의 활력이 저해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노포에 후계자가 없거나 하여 문을 닫게 되면 개발업자가 그 땅을 구입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든 후 주변에 일정 넓이의 땅이 확보되면 고층집합주택을 짓는다.

예전에는 자치단체가 맨션 주민에 관한 정보를 동네 자치조직에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기초해서 각 세대별로 자치조직에의 참여를 권유하거나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자치단체로부터 일체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결코 쉽지 않은 않았던 맨션 주민에 대한 자치조직 참여권유가 더욱 어려워졌다.

맨션 주민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상점을 경영해온 사람들 중에는 자치조직이나 상점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이상의 맨션 건설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자치조직에서는 맨션 건설에 대한 지역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면 직접 그곳에 가서 토착지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개발업자에게 호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거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는 거의 반 포기한 얼굴을 하며 맨션을 올려다 본다.

분명 고층집합주택 내부는 공용공간까지 고려된 쾌적한 주거지이겠지만, 결국 이러한 고층집합주택의 출현이 그 외부에 있는 토착지역의 생활을 메마르게 만드는 현실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어떠한지 토론자로서 궁금하다.

좀 억지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고층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대체 어째서 오로지 그 내부 생활만에 시선이 모여져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이러한 문제설정 자체에 규명해야 할 당위성, 즉 '당연' 하다고 여겨지는 사고의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2. 일본 민속학의 역할, '세상해설(世相解説)'

일본 민속학에는 '세상해설' 이라는 인식론이 있다. 이것은 민속학이 눈 앞에 펼쳐지는 일상생활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방법의 문제, 다시 말해 학문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 민속학의 틀을 만든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는 스스로 구상한 민속학의 역할에 대해 '세상해설' 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나기타 구니오는 그의 저서 『명치대정사 세상편(明治大正史 世相篇)』(1931, 이하 『세상편』)에서 일상생활의 역사를 뜻하는 '세상사' 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세상해설'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책은 농업경제사가이면서 동시에 농정에 관여하는 관료이기도 했던 야나기타 구니오와 이후에 민속학을 구상한 야나기타 구니오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저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상편』 은 쇼와 공황(昭和恐慌)의 여파를 받아 피폐하고 궁핍해진 농촌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은 어째서 궁핍한가의 원인을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 시대에 이르는 약 60년 동안 지방·농촌의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 다각적으로 찾고자 하였다. 이 글 속에서 『세상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언뜻 보기에는 하찮은 일상적인 사물과 현상들에 대한 서술만이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메이지·다이쇼 시대라는 일본의 근대를 이야기하는 역사서를 표방하면서도 예를 들어 대외전쟁이나 연이어 발생한 소작쟁의, 노동쟁의 등은 책 속에서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대사의 정식무대에 출현하는 역사적인 인물의 고유명사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변화하는, 분명 확실히 변화하고 있던 일상생활의 역사, 즉 '세상사' 를 통해 '세상해설' 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었다.

3. '세상'이라는 태도와 시선

'세상' 이란 이 세상의 모습을 광의적으로 뜻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본어 단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야나기타 구니오는 이 '세상' 을 매우 전략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상' 이란 우리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온 '눈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실'(야나기타 구니오, 1931 [1998], 337)에 기초해서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 즉 방법을 의미한다.

『세상편』 에서 야나기타는 농촌의 생활이 메이지·다이쇼 시대 약 6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60년이라는 시간의 폭이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라는 점은 '세상' 이라는 방법의 요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60년이라는 기간을 현재에 비추어 보자면 대략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길이와 겹쳐짐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경험과 중첩될 수 있는 이 시간의 폭은 '실험의 역사' 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인식론과 연결된다. 『세상편』 의 제 1장에서 야나기타는 '실험의 역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본인 스스로가 최근에 과거라는 범주 안에 편입된 지금까지의 상태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실" 에 기초하여 누군가에게 "지도 설명" 받지 않아도 "많은 동료들과 함께 말하지 않아도 그 경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역사이며 그 역사의 실천은 가능한 "다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즉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주 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야나기타 구니오, 1931 [1998], 342). 여기서 '실험' 이란 experiment 가 아닌 experience (경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야나기타가 말하는 ‘실험의 역사’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경험해온 현상 중에서 이미 과거의 경험이 되어버린 현상과 본인 스스로가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 ‘실험의 역사’라는 발상은 당시 제국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의 기법을 습득한 전문가의 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삶의 실천으로 구상되었다는 점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다.

4. ‘당연’한 것을 상대화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눈앞의 사실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당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실제 경험에 바탕하여 생활의 변화, 즉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야나기타는 ‘세상사’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세상사’를 통해 어떠한 가능성이 모색되었던 것일까? 『세상편』속에서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자각적으로 문제를 공유하여 단결하는 것이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스로의 현재 경험과 과거 경험의 비교를 첫 번째 비교라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과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타자의 경험과의 비교라는 두 번째 비교 과정을 뜻하며 이러한 방법이 모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실험의 역사’로 구체화된 ‘세상사’는 개인 한 사람의 불행이나 불합리의 문제로서 당연하고 있는 것이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는 이 세상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세상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야나기타가 집필한 일본 민속학 최초의 개설서 『향토생활의 연구법』(1935)에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문제를 느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종종 “그런 거 알려고 한들 알리가 있겠어?” 또는 “당연한 거잖아”라든가 “세상이란 그런거야”라며 어째서 그러한지, 그 경위에 대해 물음을 던지기도 전에 포기해 버리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야나기타 구니오, 1935 [1998], 203 ~ 204).

즉, ‘당연’ 함이란 이러한 ‘포기’와 표리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세상사’의 목적은 먼저 문제를 안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문제가 어째서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즉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을 바꾸어 나갈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5. ‘문제’의 자각과 ‘일상화’ 비판의 범위

이상에서 살펴본 ‘세상사’ 해석을 통한 ‘세상해설’이라는 야나기타의 발상과 오늘 심포지엄의 문제제기를 포개어 살펴보면 질문을 던져야 할 문제란 이미 우리가 떠안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즉 의식화되어 있는 문제라는 전제에서 있어야 하는데, 오늘 개최된 심포지엄 “‘당연’을 묻는다!”에서는 그러한 고민이나 문제가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질 않다.

오히려 한국, 중국, 일본 각국에서 익숙해져 버린 고층집합주택의 생활 비교를 통해 각각의 ‘당연’ 함을 상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고층집합주택의 ‘당연’ 함을 상대화한 후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모순이나 문제를 ‘자각’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한다. 모순이나 문제를 깨닫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큰 문제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당연’ 함의 구성방식이 문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 생활의 당위적인 모습이나 이상형을 끊임없이 생산해온 대중매체의 정보나 생활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대적인 시장경제 등의 제도가 ‘당연’ 함의 이미지를 우리들 안에 주입해가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발표들이 관심을 갖었던 것은 소여의 제도나 장치, 물건, 도구 등을 자유자재로 활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당연’ 함과 그 가능성이었다.

예를 들어 이와모토 씨는 발표 속에서 ‘일상화’ 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소여의 균일한 제도나 장치를 스스로의 문맥 안에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당연’ 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남근우 씨의 발표에서 주어진 기존의 집합주택의 구조를 한국의 종래 관습에 맞추어 활용하여 ‘토착화’ 해가는 과정으로 설명되는 내용과 유사하다. 즉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을 만들어가는 지혜와 궁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화,’ ‘토착화’ 의 과정 속에는 균일한 제도나 장치를 자신들의 문맥 안에서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대강대강 어떻게든 꾸러나감으로써 그러한 제도나 장치로 인해 우리가 깊어져야 할 불합리나 모순 등과 같은 문제를 의식화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심포지엄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그러한 위험성을 직시하고 ‘당연’ 함 뒤에 숨겨져 있는 불합리와 문제를 재발견하여 지적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이라는 길일 것이다.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한국, 중국, 일본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각각의 ‘당연’ 함을 물어 밝힘으로써 각각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현재 필자는 앞에서 언급했던 하카타의 길거리에서 그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고층집합주택을 올려다보며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 고 중얼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고층집합주택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1931, 『明治大正史 世相篇』(1998, 『柳田國男全集5』, 筑摩書房).

_____, 1935, 『土生活の研究法』(1998, 『柳田國男全集8』, 筑摩書房).